



보도 일시	2022. 10. 5.(수) 16:30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10. 5.(수) 16:30
담당 부서 <총괄>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김정주 (044-201-2537)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 지자체 · 환경부 협업 강화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당부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0월 5일(수)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김인중 차관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일선 방역 관계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 빠짐없이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는 문경, 영주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하고, 농장 뒷문 폐쇄, 소독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관내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인중 차관은 김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환경부와 경상북도, 김천시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기관과 축산 관계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김정주 (044-201-2537)
<거점소독 시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화태 (044-201-2552)